

4 뉴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참매가 연줄에 부딪히는 사고로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다.

(사진=한국 조류 연구소 이진원 박사 제공)

우리학교 한국 조류 연구소 탐사팀 밤섬에서 고개 돌아간 참매 발견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지난 26일, 도심 속 랍사르 습지가 불리는 서울 한강변 밤섬에 고개가 돌아간 참매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시 우리학교 한국 조류 연구소 탐사팀이 밤섬 조류 생태 탐사를 진행하던 중 다친 참매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신문은 해당 탐사팀의 일원이자 경희대학교 한국 조류 연구소 소장 생물학과 유정철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밤섬 조류생태 탐사 도중 연줄에 걸린 참매 발견

“윗밤섬의 조사를 진행하던 중, 푸드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간 참매를 발견했다.” 참매를 목격한 유정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발견 당시 밤섬에서 조류생태 탐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탐사팀은 아래밤섬에서 날고 있는 참매를 목격했고, 참매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래밤섬 조

사가 끝난 이후, 윗밤섬 탐사를 시작하며 탐사팀은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참매를 발견했다. 참매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연줄’을 발견하게 됐다. 유 교수는 “시멘트와 같이 딱딱한 곳에 부딪혔다면 더 위험했을 상황이었다”며 “빠른 속도로 날다가 나무에 걸려진 줄에 부딪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탐사팀은 10m 이상의 나무들에 길게 걸려진 연줄을 발견했다. 유 교수는 “연줄로 인해 참매가 다친 것 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며 “하지만 밤섬은 인간접근 금지구역으로 새들이 다칠만한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허공에 걸려진 굵은 연줄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발견 직후, 유 교수는 서울시 야생동물 보호센터로 연락해 부상당한 참매를 인계했다. 서울시 야생구조센터는 “26일에

구조센터로 인계된 참매는 뼈 골절 상태는 아니었지만 목을 가누지 못하고 자꾸 처지는 상태”였다고 하며 “이후, 신경 증상 치료를 위한 수액 처치를 진행했지만 치료를 버티지 못하고 28일 폐사했다”고 전했다. 참매는 대략 50cm 크기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이다. 조류의 최강자인 맹금류로 분류되지만, 인간이 무심코 날린 연줄에 목숨을 잃었다. 유 교수는 “이전에도 새들이 연줄이나 낚시줄에 걸려 발이 끊어지는 경우는 많았다”며 “이번 사고처럼 허공의 연줄에 걸려 부딪힌 건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밤섬 주기적인 정밀 조사 필요** 서강대교 아래 위치한 밤섬은 1999년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는 유 교수가 서울시에 생태경관보전지역(당시 명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자는 건의로 이뤄진

결과다. 실제로 밤섬은 생태복원 사업으로 동·식물들의 삶터이자 철새들이 쉬어가는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특히 2012년 랍사르 습지로 등록되며 ‘도심 속 랍사르 습지’로 불린다. 한강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밤섬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 일대와 암사동 일대가 해당된다. 유 교수가 이끌고 있는 우리학교 한국 조류 연구소는 계절별로 2회 정도 보전지역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교수는 “밤섬과 더불어 암사동,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도 정밀변화관찰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참매를 목격한 것도 매년 해온 한강 밤섬 정밀조사 중에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던 정밀 조사 수행 중 다친 참매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밤섬은 서울 생태경관보전지역 중에서도 강도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보전지역과 달리 밤섬은 일반인의 접근을 막은 도심 속 무인도다. 밤섬

내에선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 교수는 “밤섬 안에서 누군가가 연을 날린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강 주변에서 연을 날리다 끊긴 줄이 밤섬으로 날아온 것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에게 사소한 취미 활동이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야생동물과 공존을 위한 인식 제고 필요

밤섬에 붙는 여러 수식어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 교수는 “하천 지역을 잘 가꾸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생물의 삶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한강 하구에는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멸종위기종이 많이 살 수 있는 좋은 서식지”라고 전했다. 이어 “예전부터 한강 주변에서 ‘연날리기’를 금지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참매 사고 이전에도 새의 다리에 걸린 연줄이 2차적으로 나무에 걸려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인간도 살 수 없는 공간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